

생산직 근로자의 건강실태 조사

마산 간호전문대학 논문집 제6권, 1981.

김수옥 · 신상춘

산업 인구의 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1980년 6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경상남도 마산과 창원지역의 15개 생산업체의 근로자 1,808명을 대상으로 Cornell Medical Index에 의한 건강실태를 조사한 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총 대상자의 전항목 평균 호소하는 31.89 ± 23.49 이고 여자는 36.31 ± 23.21 , 남자는 26.06 ± 19.48 로 여자의 평균 호소수가 많았다.
2. 여자 근로자가 가장 많이 호소하는 항목은 소화기(D)이고 남자 근로자가 가장 많이 호소하는 항목은 부적응(M)이었다.
3. 총대상자의 신체적 항목에 대한 평균 호소수와 정신적 항목에 대한 호소수는 거의 같았다.
4. 연령별로 보면 15-29세 집단이 34.09 ± 23.03 으로 가장 평균 호소수가 많으며, 노여움(Q), 부적응(M) 항목의 특징이 높았다.
5. 근속연수가 1년미만인 집단의 경우는 불안(O) 항목의 특징이 높았고, 5년이상 집단의 경우는 부적응(M) 항목과 긴장(R) 항목의 특징이 특히 낮았다.
6. 대졸 집단이 34.04 ± 26.02 로 평균 호소수가 가장 많았다.
7. 업종별로는 화학 계열이 36.56 ± 24.92 로 평균 호소수가 가장 많았다.
8. 기혼 근로자의 호소수가 미혼 근로자보다 적었다.

산업장에 근로하는 여성근로자의 건강상태 파악을 위한 일 연구

간호학논문집 연대간호학연구소, 1981.

전산초, 김조자, 최옥신, 유지수

1. 결론

1970년 이래 산업사회로 급진전하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하에서 증가 추세에 놓여 있는 여성 취업 인구의 건강관리는 작업능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가의 일꾼을 잉태 성장케하는 배려가 요청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근로자의 건강관리의 일환으로 그들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그 자료를 기반으로 여성 근로자들이 필요로 하는 건강교육 사항을 파악하는데 있다.

1978년 7월부터 8월까지 훈련된 조사원 2인이 Cornell Medical Index 를 적용하여 여성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체 가운데 두 집단을 임의로 선정하여 352명 전수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백분율, T - test 및 x^2 - test 를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여성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여성근로자의 건강 정도는 정상범위에 있는 자가 66.5%, 약간 문제시 되는 자가 26.7%, 크게 문제시 되는 자가 6.8% 였다. 이는 같은 도구 즉 C. M. I. 를 사용하여 조사한 타 집단 즉 여자대학생, 여교사, 간호 대학생, 간호원, 가정부인을 대상으로 한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전체적 평균 호소수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항목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체적 계통 144문항 중 30% 이상의 호소율을 보인 문항은 25문항이었으며 그 중 많은 호소율을 차지한대로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끔 눈이 아플 때가 있는지요?”가 77.0%, “식사후 항상 배가 부른것 같이 느끼는가요?”가 70.5%, “소화가 때때로 안되는가요?” 63.1%, “신체의 어느 곳이 쭈시든지 저리는 때가 있는지요?”가 52.3%, “음식을 급하게 먹는 습관이 있는지요?”가 48.0%, “계속해서 눈을 깜빡거리거나 혹은 눈물이 계속 나오는 때가 있는지요?”가 46.3%, “머리가 무겁고 아파서 일상생활을 괴롭히는 때가 있는지요?”가 46.0%, “평소에 아침에 일어난 후에도 피로하거나 힘이 없어 맥이 빠지는지요?”가 46.0%, “위가 좋지 않아서 종종 고통스러운가요?”가 41.5%, “정신적으로 일을 좀 하면 끝지치는가요?”가 41.2%, “다리에 종종 경련이 일어나서 괴로운 때가 있는지요?”가 41.2% 의 호소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정신계통 51문항 중 30% 이상의 호소율을 보인 문항은 25문항이었으며 그 중 많은 호소율을 차지한대로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낮설은 사람이나 낮설은 장소에 있을 때 두려운 생각이 드나요?”가 61.1%, “상급자와 접하게 될 때에 신경이 쓰여지고 긴장이 되는지요?”가 57.4%, “항상 협력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기를 원합니까?”가 57.1%, “어떤 일에 마음을 결정하는데 힘이 됩니까?”가 54.9%, “근처에 아무도 없고 혼자있을 때 불안감이 오는가요?”가 53.7%, “상급자가 당신을 무시하면 일이 제대로 잘 되지 않는지요?”가 52.3%, “갑자기 당신을 향해 소리를 지를 때 당신은 당황하고 연약하다고 느끼니까?”가 51.2%, “급한 일이 있을 때에 생각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는지요?”가 47.2%, “다른 사람이 무

엇을 바라고 지시하면 기분이 나빠지고 화가 나나요?”가 46.6%, “갑작스런 소리에 심하게 놀라거나 굉장히 중요하는 편입니까?”가 42.1%의 호소율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호소율 검토를 통하여 여성근로자의 지속적인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해서는 22개항의 건강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러한 건강교육이 산업장 단위로 여성근로자들에게 제공될 때 그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 높아져 자주적으로 건강을 보유하는 국민이 되며, 나아가 건전한 국가를 이룩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본다.

2. 제언

1) 본 연구에서 파악된 여성근로자들의 건강증진생활에 필요한 건강교육 사항을 내용으로 한, 건강생활교본과 같은 소책자를 발간할 것을 제언한다.

2) 여성근로자들이 필요로 하는 건강교육을 시킨후, 교육 전·후의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연구를 시도할 것을 제언한다.

산업장 여성 근로자들의 피로자각증상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1.

정 승 희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여 작업능률 향상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는데 도움이 되고자 피로자각증상 조사표를 이용하여 전주 시내 3개 공장에서 근무하는 여성근로자 233명을 대상으로 피로자각증상을 조사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여성근로자들의 피로자각증상의 총 호소율은 51.19%였고, 증상군별호소율은 신체적, 신경감각적, 정신적증상군의 순서로 높게 나타나 I dominant형(일반형)이었다.

2. 신체적증상(A) 항목의 최대호소수를 나타낸 소항목은 「다리에 힘이 없다」란 항목으로 65.24%이었으며, 최저호소수를 나타낸 소항목은 「동작이 부드럽지 못하다」의 51.50%이었다.

3. 정신적증상(B) 항목의 최다호소수를 나타낸 소항목은 「말하기 조차 싫어진다」로 46.78%이었고, 최저호소수를 나타낸 소항목은 「조바심이 난다」로 36.0%이었다.

4. 신경감각적증상(C) 항목에 있어서 최다호소수를 나타낸 소항목은 「입안이 마